

푸른 하늘·맑은 공기 되찾기 '골든타임 10년'

미세먼지 제로 프로젝트

김동식·반기성 지음



"당신들은 당신의 자녀를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아이들의 눈앞에 있는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공허한 말들로 인해 나의 꿈과 나의 어린 시절이 도둑질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계 정상들이 기후위기 해결에 즉각 행동해주세요."



지난해 3월에는 '매우 나쁨' 수준의 3배까지 오를 만큼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의 하늘이 뿌옇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부터 2019년 1년간 구글의 단어 검색어 2위를 차지할 만큼 미세먼지는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는 3월 초순까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당시 '매우 나쁨' 수준의 3배까지 오를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다.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단 10년"이라고 주장하는 날씨 전문가들이 있다. 공기서비스업 케이웨더 대표인 김동식 '날씨경영진도사'와 반기성 기후산업연구소장이 바로 그들. 두 사람이 펴낸 '미세먼지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극복은 바로 미세먼지 퇴출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2019년 OECD 회원국 도시 중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100개 도시 중 우리나라 도시가 61개나 됐다. 하늘을 뒤덮은 뿌연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들은 물론 야외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를 불러오고 생물계 돌연변이를 야기한다.

이제는 깨끗한 공기가 돈이 되는 시대이며 공기 좋은 곳이 삶의 질과 직결된다. 미세먼지가 제로가 될 때 누구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12~3월까지 약 4개월간 평소보다 강한 감축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 시기는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고 우리나라 날씨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조건이 되는 때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집중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기존 비상저감조

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강력하게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졸업아 10~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절반으로 낮추는 데 유럽이 20년, 일본이 10년 이상 소요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5년의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2030년 장기 목표를 세우고 정책의 방향성과 지향성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만 기후변화 대책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할 장기적인 정책 추진(전원믹스 설계, 산업구조 개편,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리스타-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제와 나치 시대 네 여성 예술가들의 뒤틀린 삶

제국의 아이들

이혜진 지음



통해 혁신적인 촬영 기법을 선보인 그녀는 '나치의 프로파간다'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불세출의 천재'로 경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범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이후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진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한 그녀는 101세로 사망할 때까지 나치 혐의를 부인했다.

이혜진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가 펴낸 '제국의 아이들-제국의 시대를 살았던 네 명의 여성 예술가'는 20세기, 일본과 독일의 제국주의를 경험한 예술가들이 국가주의와 개인의 아이덴티티, 프로파간다와 예술적 성취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갔는지, 그것이 성공했는지 혹은 결국 실패했는지 추적한 책이다.

저자가 주목할 또 다른 인물은 무용가 최승희다. 16세의 나이에 일본 신무용가 이시이 바쿠의 문하에 들어가 후 제국 일본의 무희로 명성을 떨친 최승희는 '대동아공영'을 위한 일제 프로파간다에 복무했다는 이유로 전후 친일 혐의를 받고 월북했다. 북한 예술인 최고의 영예인 '인민배우'의 반열에 오른 그는 남편 안악의 숙청과 함께 몰락한 후 잊혀졌다 1990년대 복권된 후 2000년대 들어 한국 신무용의 선구자로 남북한 모두에서 주목받았다.

독일 출신 여배우로 당대의 세시 심벌이었던 히틀러의 제 3제국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후 연합군을 위한 위문 무대에 오른 마를레네 디트리히. '미군들의 영원

그가 탄 전용기가 뉘른베르크에 착륙하자 사람들은 환호한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를 보기 위해 거리에 늘어서던 군중들은 손수건을 흔들고 꽃다발을 건네며 외치기 시작한다.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라고.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시작되는 '의지의 승리'는 1934년 9월 5일부터 14일까지 히틀러의 순찰과 나치당의 전당대회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선정영화의 정석으로 꼽힌다.

이 영화의 감독은 '예술가의 입장'에서 촬영해달라는 히틀러의 부탁을 받은 레니 리펜슈탈 감독이다. 36대의 카메라와 120명의 촬영 스태프가 참여한 이 영화를

한 연인'으로 불리며 연합군 측의 프로파간다에 적극 협조한 탓에 독일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혔던 그녀는 나치 몰락 후에도 그 이미지를 벗지 못했고, 사후 10년이 흐른 뒤에야 독일 명예시민으로 추서됐다.

그밖에 중국에서 태어난 일본인 소녀 야마구치 요시코를 만난다. 만주국 이데올로기인 '오족협화'의 상징이 돼 중국인 리상란으로 활동하며 영화배우이자 가수로 대성공을 거두지만 일본 패망 후 중국인 친일파로 몰려 처형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그녀는 야마구치 요시코로 회귀, 일본에 돌아와 3선 참의원장을 지내며 국제 평화주의를 위해 힘썼다.

저자는 "네 명의 뒤틀린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대중문화 권력 속에 놓인 한 개인의 딜레마, 상업자본에 기반을 둔 소비사회의 기만성과 대중의 공동감각 등 우리 삶의 현재적 맥락에서 반추해야 할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과함께-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 아이 첫 과학책=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대화와 놀이로 과학을 만나게 하는 책이다. 본격적인 과학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야 시작하지만 아이들은 그 전에도 과학과 만나고 있다. 자석을 이용해 냉장고에 사진을 붙인 일,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인정한 일, 쓴 약을 먹을 때 코를 잠깐 막아 달라는 일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과학으로 연결해 설명한다. <뜨인돌어린이-2만원>

▲씩씩한 엄마 달콤한 아빠=아이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젠더 감수성을 키워 주는 그림책이다. 책 속의 엄마는 못도 똑똑 잘 박고, 아이와 온몸으로 놀아 주며 아이를 웃게 한다. 아빠는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아이가 슬퍼할 때 따뜻하게 보듬어 준다. 성으로 서로의 역할과 정체성을 구분 짓기보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며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풀빛-1만2000원>

▲얼음 아이= 다른 친구들보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친구들과 말하는 게 힘든 주인공 송이의 이야기다. 엄마, 아빠 앞에서만 웃는 송이는 친구들과 앞에만 서면 마치 얼음처럼 쫄쫄 얼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송이의 마음 속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틀린 게 아니라 저마다 다른 아이들을 소개한다. <씨드북-1만2000원>

새로 나온 책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1·2=CBS 음악 FM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진행자 배우 강석우가 자신의 이야기와 음악을 엮은 책이다. 프로그램 속 코너인 '플레이리스트' 내용들을 묶은 것으로 2017년 1권이 출간됐고 최근 2권을 펴내면서 재출간했다. 책에는 클래식을 접하게 된 어린 시절의 이야기 등 총 134편의 사연이 담겼고 그에 걸맞는 DJ 강석우의 선곡이 동봉됐다. <삼국-3만원>

▲실리콘 제국=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저자는 실리콘밸리가 단지 한 산업 부문이 아닌, 그 자체로 산업의 기류이고 문화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곳에서 부상한 스타트업과 그 문화, 자유로 대변되는 라이프스타일과 기술의 연계, 인터넷 시대에 따른 영향력의 증가 등을 살펴본다. 또 실리콘밸리가 산업을 넘어 소수 커뮤니티로서 정치와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까지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개체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6000원>

▲세계 여성의 역사=최후의 만찬은 누가 차렸을까 책은 다소 엉뚱한 질문으로 이야기의 막을 연다. 저자는 남성들만의 것처럼 보인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여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세계사가 지워버린 가장 거대한 집단인 여성들의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단편이 주를 이룬다. 흔히 여성의 가장 오래된 직업은 매춘부라고 말하지만 저자는 매춘부가 아니라 여신을 섬긴 사제, 즉 성직자가 여성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었음을 밝혀낸다. <신성림-2만2000원>



14년 동안 50쇄 10만 부가 판매되며 논리학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웅진지식하우스-1만6000원>

▲세계 여성의 역사=최후의 만찬은 누가 차렸을까 책은 다소 엉뚱한 질문으로 이야기의 막을 연다. 저자는 남성들만의 것처럼 보인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여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세계사가 지워버린 가장 거대한 집단인 여성들의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단편이 주를 이룬다. 흔히 여성의 가장 오래된 직업은 매춘부라고 말하지만 저자는 매춘부가 아니라 여신을 섬긴 사제, 즉 성직자가 여성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었음을 밝혀낸다. <신성림-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우리 아이 첫 과학책=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대화와 놀이로 과학을 만나게 하는 책이다. 본격적인 과학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야 시작하지만 아이들은 그 전에도 과학과 만나고 있다. 자석을 이용해 냉장고에 사진을 붙인 일,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인정한 일, 쓴 약을 먹을 때 코를 잠깐 막아 달라는 일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과학으로 연결해 설명한다. <뜨인돌어린이-2만원>

▲씩씩한 엄마 달콤한 아빠=아이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젠더 감수성을 키워 주는 그림책이다. 책 속의 엄마는 못도 똑똑 잘 박고, 아이와 온몸으로 놀아 주며 아이를 웃게 한다. 아빠는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아이가 슬퍼할 때 따뜻하게 보듬어 준다. 성으로 서로의 역할과 정체성을 구분 짓기보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며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풀빛-1만2000원>

▲얼음 아이= 다른 친구들보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친구들과 말하는 게 힘든 주인공 송이의 이야기다. 엄마, 아빠 앞에서만 웃는 송이는 친구들과 앞에만 서면 마치 얼음처럼 쫄쫄 얼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송이의 마음 속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틀린 게 아니라 저마다 다른 아이들을 소개한다. <씨드북-1만2000원>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